

  <b>제주특별자치도</b>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20. 3. 11.(수) <b>배포 즉시</b> 보도 가능합니다.		
<b>제주자치 경찰 단</b>	<b>보 도 자 료</b> PRESS RELEASE	생활안전과장	우정식	710-6219
		생활안전팀장	노성민	710-6393
동영상(웹하드)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진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		후속 자료 : 없 음	

**자치경찰단 행정(복)합 치안센터 운영, 속속치안 전개**  
 - 행정과 치안 사각지대 해소 목적, 송당·저지 행복치안센터 시범운영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경찰단(단장 고창경)은

- 3. 11.(수)\*부터 중산간 지역의 행정과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치안과 행정을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「행정 복합 치안센터(약칭 행복치안센터)」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.

<< \* 3월 11일 개소 이유 >>

3월 11일은 법정기념일인 '흙의 날'로, 행복치안센터가 자연·문화·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3原의 중심지이자, 주민 행복의 밑거름인 '흙(土)'과 '일꾼(士)'이 되겠다는 의미로 3월 11일을 개소일로 선정 ※ 흙(土)·일꾼(士) = 십(十) + 일(一)

- 행복치안센터는 송당리(송당리사무소)와 저지리(저지치안센터) 2개소에 시범운영되며, 자치경찰관 2명이 상주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해소하고, 주민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치안과 행정의 융합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.

<< 행복치안센터 사무(18종) >>

<b>방법분야 (7종)</b> · 방법순찰 · 응급순찰 · 독거노인 문안순찰 · 안전위험요소 발굴 · 기초질서 지도 단속 · 방법시설 개선 · 112신고 출동 처리	<b>교통분야 (6종)</b> · 등하곳길 보행 관리 · 보호구역 개선 · 교통위반 지도 단속 · 자연재해 시 교통관리 · 축제 행사 교통관리 · 교통안전 교육	<b>수사분야 (1종)</b> · 산림·환경·식품위생 사건현장 초동조치	<b>행정분야 (4종)</b> · 교통시설 심의 접수 · 의견진술 접수·통보 · 행정민원 접수·통보 · 경찰민원 상담
--	---	---	---

- 자치경찰단에서 송당리·저지리 주민 각 10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치안센터 운영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응답자의 80%가 운영에 찬성하였으며, 범죄예방 > 교통사고 예방 > 방범시설개선 > 학교안전 順으로 행복치안센터의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자치경찰단에서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행복치안센터를 리사무소 연동형(송당)과 사무 확장형(저지) 2가지 형태\*로 시범 운영한 뒤, 주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'21년부터 확대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.

« \* 행복치안센터 운영 형태 »

- 리사무소 연동형(송당) : 리사무소 내부에 치안센터를 설치하여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, 행정과 치안의 융합 사무를 중점 발굴 (전국 최초 모델)
- 사무 확장형(저지) : 기존 1인 체제 치안센터의 인력과 사무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치안활동을 중점 전개

- 행복치안센터는 마을을 속속들이 살펴보며(속속치안), 주민과 소통하는 △만나는 경찰, 동네 어디서는 볼 수 있는 △보이는 경찰, 마을의 일꾼으로서 △도움주는 경찰 활동을 중점 전개한다.
- 3월 2일부터 열흘간 현장에서 시범운영을 준비한 결과, 주민들은 “우리동네 자치경찰이 마을을 지켜주어 매우 안심이다”며 행복치안센터 운영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.
-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주민들을 먼저 찾아가는 지역맞춤형 사무를 중점 수행하여 행정과 치안 소외지역을 줄이는 한편, 행복치안센터 운영 성과를 분석·발전시켜 제주지역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을 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.

붙임 : 활동사진 3매(△송당센터 입간판 △방역 지원 △독거노인 문안순찰)